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쿠팡플레이 현장 생중계! 황금연휴 첫 주말, 풀 패키지로 만난다!

2025. 9. 29.

쿠팡플레이가 F1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모든 순간을 현장 생중계한다.

- **황금연휴 첫 주말, 10월 3일(금) - 5일(일), 싱가포르 GP 풀 패키지 중계**
- **가라지 투어·드라이버 인터뷰 등 팬심 저격 콘텐츠 총집합**
- **윤재수 해설위원 "맥라렌 vs 베르스타펜, 챔피언십 판도 흔든다!"**

2025. 09. 29. - 쿠팡플레이가 10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시가지 서킷에서 열리는 '2025 FIA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현장에서 풀 패키지로 생중계하며, 3년 연속 현장 중계라는 기록을 이어간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1 최초의 야간 레이스가 열린 상징적인 무대로, 마리나 베이 서킷의 화려한 야경과 함께 매년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올해는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이 조기 확정될 수 있는 분수령으로 주목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쿠팡플레이는 프랙티스부터 퀄리파잉, 본 레이스까지 전 세션을 생중계하며, 싱가포르 GP의 모든 순간을 단독 시점으로 전달한다. ▲3일(금) 오후 6시 15분·9시 45분 프랙티스 1·2 ▲4일(토) 오후 6시 15분·9시 프랙티스 3·퀄리파잉 ▲5일(일) 오후 8시 본 레이스 현장의 열기와 긴장감을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이에 더해, F1 팬들을 서킷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독자적 시점의 콘텐츠도 선보인다. 윤재수 해설위원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피트레인을 직접 걸으며, 각 팀의 타이어 전략과 현장 분위기를 분석한다. 이어 하스 팀 감독 아야오 코마츠와 함께 가라지 내부를 둘러보며, 팀 운영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가라지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실버스톤 그랑프리에서 생애 첫 포디엄을 기록한 니코 훌켄버그의 레이스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카 프레젠테이션'도 마련된다. 윌리엄스의 알렉스 알본, 하스의 올리버 베어먼, F1 아카데미의 알바 라르센 등 주요 드라이버들과의 인터뷰도 진행돼,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싱가포르 GP의 관전 포인트를 전한다.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중계 일정

경기 중계는 'F1 중계 콤비' 안형진 캐스터와 윤재수 해설위원이 맡아, 싱가포르 현장에서 프리뷰쇼부터 본 레이스까지 전 과정을 전달한다. 진세민 아나운서도 현지에 합류해 서킷 안팎의 분위기를 리포팅하며, 중계 화면에 현장의 온도를 더한다.

윤재수 해설위원은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쿠팡플레이의 3년 연속 현장 생중계로, 맥라렌이 윌리엄스를 넘어 통산 10번째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인 무대"라며,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하며 유독 싱가포르에서 부진했던 베르스타펜의 우승 도전이 최대 변수다. 만약 그가 이곳에서 우승한다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양자 대결이던 챔피언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3자 대결로 재편될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싱가포르에 이어 시즌 최종전인 12월 아부다비 그랑프리도 현장 리포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시즌부터는 국내 최초로 프랙티스부터 본 경기까지 모든 세션에 4K 초고화질 중계를 도입해, 시청자에게 서킷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5 시즌 F1 전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는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가입자라면 시청이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